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11월 10일 (제102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홍 우 컬럼

단점을 보지 말라

나는 요즘 도자기 가게를 돌아보는 취미가 생겼다. 값비싼 도자기가 아니라 황학동 같은 곳에 가서 아주 오래된 도자기를 둘러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는 흠도 있고, 깨진 것도 많다. 그래서 때로 싸게 얻어오기도 한다.

나는 상담하러 오는 자들에게 이 도자기를 보여주며 비유로 권면하고 또 훈계한다. 사람들에게 “이 도자기가 어떠냐?”고 물으면 ‘멋지다’, ‘아름답다’, ‘비싸겠는데요’ 등 등 의사를 밝힌다. 나는 그들에게 도자기를 자세히 보고, 한번 두드려보라고 하면 그들은 그제야 도자기가 흠이 있고, 깨졌다는 것을 안다.

“이 도자기를 잘 보라. 깨진 도자기도 접착제로 붙이니까 이렇게 아름답지 않니? 살다 보면 인생도 깨질 수 있지. 이혼할 수도 있고,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단다. 그렇다고 낙담하면 안 되는 거야. 인생을 포기하는 건 더욱 안 되지. 도자기에 흠이 있지만 도자기의 문양이 아름다우니 흠이 눈에 띄지 않잖니? 단점일랑 그냥 두고 장점을 확대하면 흠은 가려지는 법이야. 오히려 사람들이 ‘저런 중에도 성공했구나’ 하고 대견하게 생각하게 된단다. 깨진 것은 접착제로 붙이면 보이지 않는 거야. 흑인이었고 사생아였으며, 가난한 데다 똥똥하기까지 했고, 더구나 성폭력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었던 오프라 윈프리를 보라. 그녀는 흠이 있는 대로, 깨진 그대로 당당히 세상으로 나가 지금은 1억 4천만 시청자를 가진 최고의 앵커가 되었잖니. 그녀가 늘 읊조린 말이 있었는데, 바로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였다. 맞아. 그게 어쨌다는 거야? 이혼하면 어때? 실패했으면 어때? 좀 똥똥하면 어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니? 다이아몬드에 흠 좀 생겼다고 버리니? 너는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존재야.”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용기를 얻고 돌아간다.

당신만 흠이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성공한 사람은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장점을 무기로 쓴 자들이다. 혹 깨졌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다.

너희는 매사 여유를 가져라

가을로 가득한 우리 기도원을 찾았다. 비록 하늘은 많이 찌푸려있었지만, 구름 사이로 비치는 반가운 햇살이 단풍의 색깔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다.

목사님은 예의 그 슈바이처 모자를 쓰시고 기도원 구석구석을 다니고 계셨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열 명 남짓한 제자들을 데리고 직접 교육하는 일이 설교하는 것보다 몇 배는 힘들더구나.”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목사님께서 피곤한 내색을 하시는 경우는 현재 진행하고 계신 일에 매우 흡족함을 표현하시는 거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매우 보람과 기대를 갖고 계신 것이 분명했다. 식당 근처에서 만난 목사후보생들의 모

다고 한다. 가르치기에 앞서 손수 모범을 보이는 일이 지도자의 기본자세임을 행동으로 웅변하신 것이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벧전5:2~3). 사진에서 보듯 모든 목사후보생들은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는 우리 예수중심신학교육의 대명사였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서로 말하지 말고 자신과 대화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다. 휴대폰을 모두 회수한 것도 같은 조치다. 하나님을 배우겠다고 기도원에 들어와 훈련에 임한 자가 여전히 세상적인 관심사에 마음을 빼앗기고, 자주 인간의 말을 하다보면 목적 자체를

가집시다!” 라고 함창한다.

목사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내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매사 조금하고 여유가 없어 고통을 당한다. 거목이 어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7일 금식도 쉬운 게 아니다. 그러나 21일 금식시킬지도 모른다 하니 너끈히 7일 금식을 해내지 않던가. 그중에는 당뇨환자도 있었고, 암 투병을 했던 제자도 있다. 그러나 기적같이 7일 금식을 해내고 오히려 더욱 건강해졌다. 나라고 왜 걱정되지 않았겠나.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올인하는 자세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기적이 연속적으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잠10:19)

습을 보아도 금식으로 좀 아위에 보이긴 하였지만 얼굴만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에 보내신 메시지를 통해 현재 목사후보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지 설명하셨다. 후보생들의 핸드폰을 모두 회수하고 마스크를 씌우며 7일 금식에 하루 7시간 기도, 10시간 성경탐독,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직접 강의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어쩌면 21일 금식을 시킬지도 모르니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다. 강력한 제자교육의 밑바탕에는 목사님의 철저한 솔선수범이 선행되어 있다. 한 후보생은 지난 주일이 가장 힘들었다며, 아침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목사님과 함께 온 종일 위성예배를 함께 드렸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그리 관심을 가졌던 21일 금식은 처음 예정대로 7일 금식으로 종료되었다. 7일 금식을 마치고 목사후보생들은 식당 한편에 둘러앉아 꿀맛 같은 죽으로 보식을 하고 있었다. 첫 보식을 하며 하는 말, “에서가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목사님은 “식욕조차 이겨내지 못하고서야 어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겠나? 그러나 큰 것을 깨달았구나.” 라고 말씀하셨단다.

목사님은 후보생들에게 가서 아침 첫인사가 뭔지 물어보라 하셨다. 보식을 마치고 식당을 나오는 후보생들에게 물었더니, 단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여유를

나타내고 있는 영적 현상이었다. 팔조차 들어 올리지 못하던 환자가 기도원에 들어와 고침을 받고, 멀리 독일의 은주 자매는 아들이 39도의 고열로 펄펄 끓는다며 애통하더니 목사님의 전화로 기도를 받는 순간 열이 떨어져 정상이 되었다고 기뻐했다는 것이다.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도 이제 긴 겨울의 마당으로 흩날려 가리라. 그래도 또 봄은 오고 생명은 계속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문제는 믿지 못하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불신앙이다. 매사 여유를 갖자. 믿음의 긴 호흡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추계산상집회

11월 25일(월) ~ 28일(목) 장성예수중심기도원
호텔예약: 11월 19(화) 오전 10시 정각(www.jcc.tv)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벧전5:1~11)



준비하지 않는 자, 기대할 것이 없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준비하지 않는 자의 인생은 엉망진창, 뒤죽박죽일 것이고, 그런 자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일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볼까요? 내일 학교에 갈 준비를 해놓지 않는 아이를 봅시다. 미리 준비하지 않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준비물이며 과제를 챙기는 아이를 상상해보세요. 아이는 물론 부모도 정신이 없을 것이고, 허둥지둥 학교에 갔으니 분명 빼먹고 온 것도 있고, 숙제도 안 했을 테니 선생님께 꾸지람을 들어 아이의 하루는 온종일 우울할 것입니다.

좀 더 큰일을 생각해볼까요? 곧 수능인데요, 미리 준비한 자는 수능 날짜를 학수고대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자는 불안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다 준비한 자는 여유를 가지고 호흡을 가다듬는 반면, 준비하지 않는 자는 이제야 밤잠을 설치며 부산을 떨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 하루아침에 되는 일입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도 수능주간이면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늘 “다 준비했지? 공부 많이 했지?”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공부한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줍니다. “하나님, 공부는 안 했지만, 잘 짚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인륜지대사인 결혼을 앞둔 청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돼.’ 이렇게 외치고 결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 살까요? 글쎄요. 연애는 이상이지만 결혼은 현실이기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되고, 그러니 꿈꾸는 결혼생활이 가능할까요?

거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후도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는 노후자금을 준비할 만큼 넉넉한 세대는 아닙니다. 아이들 교육하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요즘은 다릅니다. 많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니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여행 좀 떠 가고, 차는 천천히 굴리고라도 연금도 들고 적금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늙어서 눈물 항아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후준비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큰일입니다. 이런 예화 어떨까요? 유럽 한 귀족의 집에 미련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비록 미련하기는 했지만 충직하여 주인은 그를 늘 곁에 두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너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거든 이 지팡이를 주고 오너라.” 종은 주인의 말대로 지팡이를 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리 다녀도 자기보다 미련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지친 종은 지팡이를 들고 주인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저보다 미련한 사람이 없던데요.” 그러자 주인은 껄껄 웃으며 “지팡이는 네가 주인이야. 세상에 너보다 미련한 사람이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거든.”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주인이 노환으로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다. 주인은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먼 길을 떠나야 할 것 같다.” 그러자 종이 “어딜 가시려는 겁니까? 제가 짐이라도 들어다 드리겠습니다.”고 하자 주인은 “아주 멀리 간단다. 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단다.”라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주인의 말에 놀란 종은 “아니, 그렇게 멀리 가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하더니 자기 방으로 달려가 지팡이를 들고 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주인마님이십니다. 이 지팡이를 도로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시90:10). 그 세월을 살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건만, 영원히 살 세상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자는 천하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동전 한 닢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미리 이전시켜 놓을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살아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 주를 위해 일한 것입니다. ‘주를 위

해 무엇을 했는가, 주를 위해 얼마나 했는가, 주를 위해 얼마나 진정으로 했는가’에 따라 우리의 사후는 확연히 달라 집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전3:12~15).

우리의 신앙 역시 준비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

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24:42~44).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천사도 아들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기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말입니다. ‘설마 오시겠어?’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곧 오시겠어?’ 이런 사람은 준비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방대원들은 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긴급출동 사이렌이 울리면 바로 출동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여야 합니다. 언제든 부르시면 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우리의 준비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눅12:36). 주인이 어느 시에 모든 문을 열어주려고 옷도 챙겨 입고, 신발도 챙기고 준비하고 있는 종의 심정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전략가인 손자는 최고의 전략전술에 대해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은 먼저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자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요, 준비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준비 없는 성공도, 행복도, 영생도 없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워라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게으러서입니다. ‘내일 하지 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언제나 내일입니다. 지금 게으른 나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 허접한 인생, 낙오된 인생,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게으른 나와 싸워 이기세요. 그것은 가장 힘든 싸움이기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내가 준비한 만큼 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나의 모습 역시 오늘 내가 준비한 것만큼 가 있고, 준비한 만큼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길에 사자가 있다고 핑계대지 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세요. 준비한 에스더가 왕후가 됐고, 입다 역시 준비했기에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군대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내게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왕따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못 잡는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많이 준비한 자는 멀리 가고, 높이 오를 것이고, 성공자, 승리자의 반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꿈이 있는 자는 준비합니다. 좋은 대학을 갈 꿈이 있는 자는 공부하고, 건강을 꿈꾸는 자는 운동하고,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자는 저금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꿈꾸는 자는 주의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절대 단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입니다. 노력하고 준비해야 거두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젊은이들은 배우고 익혀 준비하고, 성도들은 기도로 성령충만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 당신이 이 시대와 내세의 참된 주인 공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주님의 피로 산 영혼

산삼의 나이

인간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눈으로 볼 수 없다. 예수는 하늘나라를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과 사물을 통해 설명해주셨다. 그중에서도 씨 뿌리는 이야기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절정이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는 약속과 믿음,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는 아무 일 없었는데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면 사람들이 공격해 온다. 이때 넘어지는 자는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마13:20~21).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옥토에 뿌린 자)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울다고 믿으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이다. 특히 신앙을 세상 재물과 연관시키면 넘어지기 쉽다. 사업이 무너져도 신앙은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경기가 불경기라도 신앙의 불경기는 없어야 한다. 빛이 산더미같이 졌더라도 신앙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신앙만큼은 부유하고 충만해야 한다. 빛이나 가난은 육체가 있는 동안의 시련이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영원하다. 이 삼십 년 육체가 시련을 당할지라도 영혼의 부유까지 파괴당해서는 안 된다. 보이는 빛쟁이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유까지 빼앗길 수는 없다. 보이지 않는 영광까지 빛쟁이에게 내놓고 파괴당할 필요가 없다. 그에게 영혼의 빛은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혼이 행복할 조건까지 그에게 매인 적은 없다. 예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

유케 하리라”(요8:32)고 말씀하셨다.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자유가 있다. 아무리 육체가 매이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혼은 무한한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이 자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이루어 놓으신 선물이다. 그래서 세상 무엇도 이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다. 신앙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또한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다. 신앙은 주님이 피 흘려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주님이 갈보리에서 완성한 그분의 선물이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분의 것이다. 내 영혼은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이다. 내 영혼의 기쁨도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이다. 왜 그 기쁨을 세상 재리의 염려 때문에 빼앗겨야만 하나? 내 것은 뺏길지언정 그분의 것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내 것은 고통이 올지라도 그분의 것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 내 영혼은 그분의 것이니, 영혼은 영원히 상처받지 말아야 한다. 돌밭 가운데 떨어진 씨는 세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는 하나님이 준 것마저 빼앗겨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재물보다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피 흘리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인삼은 6년을 살지 못하고 장뇌삼은 12년이 한계라 한다. 하지만 산삼은 50년, 100년도 사니 어찌된 일인가. 인삼은 재배할 땅을 비옥하게 하고 강한 햇빛을 피해 가림막을 설치해서 생육하기에 딱 알맞은 조건을 만들어 준다. 그에 비하면 산에 뿌린 삼의 씨앗은 거의 싹을 틔우지 못하니 물과 퇴비를 주면서 농약을 치며 장뇌삼을 키운다고 한다. 자생하는 산삼은 그야말로 척박한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 보니 잔뿌리가 발달되며 그것이 약효가 강한 이유가 된다. 우리네 인간사도 마찬가지.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지 않은 영웅이 있었던가. 성경 상의 모든 위대한 인물은 심한 시련과 환난을 견뎌내는 과정을 아니 거친 자가 없다. 다윗과 요셉이 그랬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웅크리고 살았다. 야곱도 긴 인고의 세월을 견뎠다. 그 세

월은 순전히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기간이다. 산삼의 경우는 기후가 맞지 않거나 성장이 힘든 환경이 되면 낫잡을 잔다고 한다. 그 세월이 1년, 2년, 혹은 몇 십 년까지도 간다고 한다. 그래서 오래 묵은 산삼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고 예수중심신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세상눈으로 보면 웅크린 삶을 살게 되었다. 8년이다. 세상과 절연된 낫잡의 세월이다. 이제 다시 용트림을 하며 깨어날 시간이 되었다. 목사안수를 거쳐 세상을 향해 귀한 자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말씀으로 그 웅크림의 시간 속에서의 깨달음들을 토해내야 한다. 영육간의 수많은 간난고초의 열매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전하고 사랑의 향기를 전해야 한다. 허나 우리네 인생에 깨달음의 궁극이 있으리오. 다만 지혜와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다.

이광주 전도사



:: 진리의 학당 ::

아담을 추방하심 (창세기 3:22~24)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인자는 선악을 아시는 분이다. 선의 극치는 생명이고 악의 극치는 사망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곧 생명과 사망의 계명나무라는 뜻이니, 지키면 사는 것이고 범하면 멸망한다는 약속이요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그 후에는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창3:22).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악과다.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범하면 사망이 온다. 말씀이 육신 되어 나타내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계명이니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하라는 복음이다. 예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없으니 홀롭게 보일지라도 쪽정이다. ‘예수 믿으라’는 말을 오해해서 홀퉁한 인간 중에 하나를 골라잡아 예수라는 인간을 믿으라는 줄로 오해하지만, 예수는 인간의 혈통과 상관없이 우주가 있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요(요1:1:1), 그가 세상에 나타내실 때 독

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가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인자의 속에도 두셨고, 인자되심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5:26~27),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5:24). 이렇듯 그가 오실 첩경으로써 인생의 길과 인자는 하나님을 성경은 증거 한다(창1:26). 인자를 위하여 준비된 인간이 타락함을 인하여, 죽음을 맛보시는 인자가 죽임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으셨으니, 보혈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앞에 알리신 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피요(벧전18~21),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으므로 피 흘려주셔서 인간을 사해 주겠다 하신 것이다. 첫 아담은 사는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시다.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15:45). 인생이 사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요14:6).

하나님은 인자를 돕는 첩경으로 인생을 지으셨으나(롬5:14), 그 인생이 마귀의 사술에 매여 인자가 오실 길을 더럽혔으니, 아담은 죽은 영이 되었고 에덴은 영경위, 쓸모없는 땅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 흘려주실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렘1:3~12), 영원히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로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 일이 이루기 전에 죄를 지은 영혼, 마귀에게 속해서 죽어버린 영혼이 영존하는 생명과 열매를 먹으면 죄악과 사망 중에서 마귀와 함께 영존하게 된다. 그래서 마귀 형벌에 앞서 인생을 구해내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마귀를 먼저 멸하면 마귀에게 먹혀 사망의 씨를 가지고 있는 아담과 그 후에는 하나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멸망할 죄인으로서 생명나무에 손대지 못하도록 다급하게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고 화염검으로 그 길을 막으셨으니, 이제 죄인은 인류구원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생명을 얻어야 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여 영생을 누려야만 된다. 이를 위해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셨으니(행2:38),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경륜이요, 사

랑이시며 그 실현이시고 자녀에게 주신 믿음이다. 신혼여행 중에 교통사고로 죽는 자가 있고 누구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될지 모른다. 음부에서 횡행하는 사망에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해도 죄 없이 함을 받고 가야 한다. 항상 회개의 문에서 기다리시는 주님 전정에 무릎 꿇어 쓴 나물 먹듯이 회개하는 일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아담이 지은 죄뿐 아니라 무력하여 짓는 죄도 대속하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 없이함을 받고 자신을 성결케 지키려는 투쟁이 필수적이다. 항상 심령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숨 쉬듯 드나드는 죄의 생각들도 속히 주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엡1:7). 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차단한다.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가 자기 영혼에게 전가되고 영혼은 이로 인해 멸망하게 된다. 예수는 우리의 죄와 사망을 피로 갚아주셨으니 예수 없으면 누구나 망한다.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로만 산다.

박덕규 목사

걱정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느 퀴즈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문제입니다. 당시 방송을 보면서 저는 ‘너무 열심히 일만 한 것’이 정답이지 아닐까 추측했는데요, 실제로 정답은 ‘걱정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는 것’이었습니 다.

사회학자 칼 필레머 교수는 노인들에게서 삶의 조연과 지혜를 얻기 위해 2004년부터 <코넬대 인류 유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65세가 넘는 1,500여 명의 노인에게 인터뷰를 실시했고, 당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무엇이 가장 후회되는지 물었습니다. 불륜이나 알코올 중독, 사업 실패 등을 예상했음과 달리 가장 많은 답변은 ‘너무 걱정하지 말 걸 그랬다’였다고 합니다.

방송을 보고 나서 관련 기사를 좀 더 찾아보니 인터뷰에 참여한 노인들은 시간 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 생각하며,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 혹은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

황에 대해 고민하는 건 귀한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말했답니다. 필레머 교수는 부정적인 상황을 예상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걱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써 본 후에 얻은 통찰이었지요.

그 후에 필레머 교수는 노인들의 답변을 통해 걱정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목표보다는 단기 목표에 집중할 것. 102세 엘레노어 매디슨은 하루에 하루의 일만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길게 보고 목표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이 계획하고 기대했던 대로 쉽게 풀리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적어도 하루 치 일만큼은 계획한 대로 실행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걱정하는 대신 준비할 것. 74세 조슈아 베이트맨은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턱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왜 두려운지 실체를 찾아내라고요. 그러다 두려워하는 합당한 이유를 찾게 되면, 걱정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라고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때로는 그냥 넘겨버릴 것. 99세의 클레어 수녀의 말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하자. 당신은 그에게 쏘아붙일 말들을 생각하며 고민한다. 그냥 아무 대응도 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야박한 면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신경을 거스를 것이다. 나 역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여기에 저는 하나를 더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것.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걱정거리라면 그건 이미 걱정이 아니겠지요. 우리의 고민은 대부분 우리의 능력 밖일 때가 많습니 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니 버겁고 괴로운 거죠. 눈앞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맡길 때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최고의 스펙, ‘웃음’

미소 짓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유쾌하고 더 이성적이며, 매력적이고 유능하고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실제로도 재판 중에 미소 짓는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다고 하여 ‘미소와 관용의 효과’라 일컫기도 했다. 미소와 가식 없는 웃음은 자신감을 나타내며 상대방의 호의를 끌어내는 기적의 스위치로 ‘나는 당신을 좋아하며 친구이자 호감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나는 바쁘거나 우울해지려고 하면 일련 의식적으로 기뻐던 일들을 떠올리며 짜증이 전염되는 걸 방지한다. 그러기에 무표정한 모습임에도 항상 미소 짓고 있다는 말도 자주 듣는다.

배달 전문 음식점인 우리 가게는 점심시간 주문접수부터 배달 완료까지 존각을 다룬다. 얼마 전 빗발치는 주문접수에 포장 등 배달까지 돕느라 다급했던 딸아이는 나의 작은 잔소리에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범벅이 되어 고성을 질러댔다. 격앙된 딸의 모습을 처음 접한 나는 곧 손님이 들어설 시간이었기에 더더욱 당황했다. 잠시 후 출입문을 열고 3명의 손님이 들어섰고, 딸아이는 번개처럼 눈물을 흘리며 미소로 손님을 맞아주었다. 이 기쁨... 한가해질 무렵 나는 ‘참으로 잘 키워서 고맙다’며 딸아이를 안고 칭찬해주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직장 내 이상형 1위는 환하게 웃는 인상과 친절이 꼽혔다. ‘스마일 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웃으면 세포에 많은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어 혈액순환이 잘되며 암세포까지 무력화시키는 기적의 호르몬(엔도르핀)이 분비된다. 10초 동안 편안대소하면 3분 동안 힘차게 노를 젓는 운동 효과도 있다고 한다. 지갑 속 사랑하는 가족의 사진을 바라보며 활용해보자. 얼굴 한가득 미소가 번질 것이다.

‘스펙 중의 최고의 스펙은 웃는 얼굴’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추성숙 집사

Good News

오래전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폭풍우로 인하여 갑자기 다리가 붕괴되었습니다. 교통 당국에서는 도로에 이르는 곳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전방에 다리 붕괴, 돌아가시오.” 표지판을 보고 차를 돌린 사람은 모두가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달려갔던 사람은 다리에서 추락하여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돌이켜야할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16:25).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길이 다들 뿐이지 정상에 올라가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

라”(행4:12).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끊긴 길이요, 막힌 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복락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상화평 목사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뇌졸중, 알아야 할 5가지

50대 초반의 김 씨는 낮부터 무언가 자신의 몸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입이 둔해지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쉽지 않고 손의 움직임이 둔해진 것 같았다. 서둘러 응급실로 향한 김씨, 검사결과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초기로 응급치료가 이루어졌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합하여 이르는 병명이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를 잘 알도록 하자.

1. 어지럼증
어지럼증은 뇌에 혈액이 일시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다.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나 앉거나,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데, 이는 뇌의 위치가 갑자기 변하면서 혈액이 뇌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

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어지럼증이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한다.

2.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다?
뇌졸중은 여러 위험인자에 의해 이차적으로 생기는 질환이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먹는 피임약 등의 위험인자를 평소예에 예방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3.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회복된 신체마비는 따로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
일과성으로 반신마비, 언어장애, 발음장애, 연하곤란, 비틀거림, 시야장애, 의식장애, 복시 등이 있었다가 회복되었더라도 가능한 빨리 병원 진료와 치료를 받아 뇌졸중을 예방해야 한다.

4. 치매와는 무관한 병이다?

‘시상’이라는 뇌 부위에 뇌경색이 생기면 치매증상이 생길 수 있다. 또 뇌의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뇌경색이 나타날 경우,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감소해 치매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혈관성 치매라 한다.

5. 침으로 다스려야 한다?
뇌졸중은 응급상황이다.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한다. 침을 맞는다면 시간을 허비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잠19:3).

미리 대비하고 점검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기도한다.

Dr. 조희경 집사
pearl9230@naver.com

